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이 지 연

2017년 2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혜연

이지연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2月

이지연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年 2月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혜 연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이 지 연

2017년 2월

Study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
- Focusing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 Of Parents -

Ji-Yeo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Hye-Yeon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Februar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Family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배경	5
제1절 청소년과 긍정심리자본	5
1. 청소년의 특징 및 긍정심리자본	5
2.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유형	7
제2절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강화	11
1. 긍정적 강화의 개념 및 유형	11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3
제3장 연구방법	17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7
제2절 측정도구	18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2
1. 자료수집	22
2. 분석방법	23
제4장 분석결과	25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제2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28
제3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30
제4절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33
제5절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5
제5장 결론 및 제언	39
참고문헌	44
Abstract	49
부록	52
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53
2. 설문지	54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21
<표 2> 척도의 신뢰도	22
<표 3> 부모의 사회적 강화에 대한 유형	24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표 5>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긍정심리자본	27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차이	29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32
<표 8>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34
<표 9>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38
<부표 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53

그 림 목 차

<표 1> 연구모형	18
------------------	----

<국문초록>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지 연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연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로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형성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내 중학교 3군데의 2·3학년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응답 등 적절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42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방법으로는 t-test, 일월 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3.61점,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이 3.40점,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3.26점, 사회적 강화 중 공감에 대한 인식이 3.1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보통'의 수준이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칭찬과 공감 등의 사회적인 강화와 신체적 접촉보다는 용돈, 선물과 같은 물질적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이 독자일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회

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경우,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중 주 상호작용 대상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일 경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은 전체적으로 3.38점,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 3.47점, 희망 3.46점, 낙관성 3.41점, 자아탄력성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이 '보통'의 수준임을 나타내며,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성적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 상호작용 대상이 어머니일 때, 긍정적 강화의 모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강화의 모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희망의 경우,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 상호작용 대상이 어머니일 경우, 긍정적 강화의 모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성적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및 기타일 때, 긍정적 강화의 유형 중 신체적 강화,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높게 나타났다. 낙관성의 경우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주 상호작용의 대상이 어머니일 때, 긍정적 강화의 모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 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은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강화에서는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었다. 특히 성적과 칭찬에 대한 인식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칭찬과 공감의 표현은 자녀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또한 사회적 강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인식되는 물질적 강화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기 긍정심리자본 형성의 중요성과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부모의 긍정적 강화의 효과성과 중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의 올바른 사용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1장 서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무한경쟁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오늘날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인재로서 인적 자원의 잠재력과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인 Martine Seligman(1998)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탐구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가 직업이나 학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redrickson(2001)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때, 생각과 행동의 폭이 확장되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며, 새로운 사고나 행동에도 수행되어 신체 및 인지·사회적 자원의 구축을 촉진한다고 하였다(김용석, 2011).

긍정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긍정심리요인들의 유지·강화를 통해 40%의 실적 향상(Losada, 2008)과 42%의 고객만족도 증진(Achor, 2010), 평균 7배 이상의 수익률 및 50% 이상의 생산성 증대(Clifton & Harter, 2003)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우문식, 2013).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상태와 관련한 Pukey(1970)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반해,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다고 하였다(손소동,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개인의 역량과 성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인간 행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긍정심리학의 흐름과 긍정적 심리상태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Luthans(2002)의 긍정심리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조직행동의 개념들 중 잠재적으로 개발가능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은 인간의 긍정적 심리속성들 즉,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속성들을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최근 학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으로 제시(Luthans et al.

2007)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박권홍, 2011).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끝없는 경쟁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잠재적인 인재양성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등을 형성해야하는 시기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속성들을 종합한 것으로, 청소년기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은 건강한 성인 및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2011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6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형성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에는 가족의 위기 및 해체, 과도한 경쟁과 학업 성취 중심 교육 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혼란과 방황,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갈등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상태는 개인의 성격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전향신, 2015).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인지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김택호, 2004). 특히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시기에 학교생활 비중의 증가로 친구나 교사 등 가정 외 환경에서의 대인관계가 중요해지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발달 과업의 수행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차적 환경에서 부모양육에 대한 이들의 수용과 반응은 심리정서적 적응의 기본적 토대가 되므로 여전히 중요하다(소선숙 외, 2010).

이러한 측면에서 Bernstein(2008)은 우리 모두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가기 때문에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미소나 칭찬처럼 자녀가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상을 주는 과정이 ‘긍정적인 강화’이다. 또한 아동이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강화는 거의 그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다.(하양명, 2010).

Maslow(1982)는 성장동기란 인간들이 과거에 달성한 업적을 초월하여 좀 더 큰 성취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기를 말하는데, 보살핌, 애정, 인정, 사랑, 그리고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개인의 성장동기를 끌어내는 최고의 유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주영, 2004). 이와 같은 부모의 긍정적 강화는 자녀의 긍정적인 심리상태 즉,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강화의 유형 중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사회적 강화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인 동시에 모든 사회활동의 바탕이 되는 활동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그 표현수단에 따라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하지만, 몸짓·표정 등을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도 충분히 의사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채선희, 1987)는 점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에서 칭찬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강화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벌과 같은 부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부정적 강화는 긍정적 강화와 달리 공포심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므로 선호하지 않는다(홍순옥, 1992).

이와 같이 강화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적 강화보다 긍정적 강화가 선호되고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 강화는 가정이나 학교 등의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적 강화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을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가정마다 자녀수가 적은 상황에서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와 선물, 용돈 등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의 무분별한 사용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강화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 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과 함께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소년과 긍정심리자본

1. 청소년의 특징 및 긍정심리자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신체발달과 더불어 인지발달, 심리 발달, 사회발달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이와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 2의 반항기라고 하며, 청소년을 주변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다른 어떠한 발달단계보다도 신체적·정신적·사회적·감성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생물학적 성숙으로 인해 그 시작이 분명한 반면, 끝나는 시점은 행동적·문화적·심리적 성숙의 개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양하다. 청소년의 발달영역은 크게 세 영역으로 생물학적 발달 영역·인지적 발달 영역·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장택용, 2015)

이처럼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통해 해결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조은숙, 2009).

특히 청소년들은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 정서경험을 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들은 행동 또한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반항적 태도와 독

립에 대한 불안과 욕구에서 나타나는 의존적 태도이다. 반항적 태도는 아동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인간으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닌 자신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홀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장희숙, 2009 ; 문채욱, 2011).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아의식이 서서히 발달하고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갖게 된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에서 발달이 지속되고 부모나 선생님, 친구 등의 감정,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로 통합하는 동일시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관계를 맺는 인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이전에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여전히 부모와 애착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시기의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감에 있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형성될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관련된 불안, 우울,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정옥분, 2007). 이러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감정의 정화,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게 하는 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동기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 등 독립성이 강해지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이해심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지민, 2012).

한편,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단순히 '기분 좋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안녕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Myers&Diener, 1995). 또한 유대감이나 애정·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인내심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낮은

환경과 경험에 융통성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미영, 2015).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청소년들이 갈등과 불안 속에서 잘 대처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심리상태 형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의 조성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유형

자본(capital)이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해온 것으로 인간이 가진 무형의 것들에 대해 가치를 나타낸 것처럼 물적 자본 외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적 자본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위와 같은 자본에 대한 구분을 확장한 개념으로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개인의 동기부여적인 역량을 의미한다(이동섭&최용득, 2010).

또 다른 정의로 Luthans와 Yourself(2007)는 긍정심리자본이란 구성원들의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Luthans와 Avolio(2007)는 긍정심리자본은 과업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필요에 따라 목표 경로는 재설정하며, 문제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에도 성공을 위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에서 출발하였으며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1998)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직업이나 학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이후 Luthans(2002)가 개인의 긍정적 심리에 관한 이론을 보다 더 발전시켰는데, 그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는 측정 및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정은영, 2013).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는 총 네 가지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자아탄력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으로 구성된다. Luthans(2005)는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통합된 심리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각각의 심리적 요인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작용이 나타나고, 각각의 개별요인으로 작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효과성을 보인다고 하였다(홍미경, 2015).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측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trait)과 달리 학습, 훈련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상태적(state-like)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Luthans, 2002).

첫 번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해 살펴보면, Bandura(1997)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의 특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와 인지적 자원,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효능감은 상태적 특성이 강조된 개념이므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고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한혜영, 2013).

또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말하고,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반영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한다(노안영·이미라·정민, 2006).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 자신과 유사한 환경 및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성공을 보는 사회적 모델을 통한 대리 경험,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계순, 2015). 이를 통해 칭찬,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 강화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의 수준을 결정하며 수행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중요하며(김아영·김미진, 2004), 인간의 행동의 주된 동기이며, 인간의 삶은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신혜림, 20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긍정심리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변수이다(Luthans, 2002).

두 번째는 희망(hope)으로 Menninger(1959)는 목표획득을 위한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였으며, Stotland(1969)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인간행동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Snyder(1994)는 개인의 막연한 믿음과 바람의 뜻으로 사용되던 ‘희망’을 과학적 연구와 측정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는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기 위한 동기를 생성하는 목표 지향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정미나·이창식, 2011). 즉, 희망을 긍정적인 동기부여상태로 보았다. 또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해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사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통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나타내는 주도적 사고, 이 세 가지를 희망의 구성요소로 보았다(안혜경, 2008).

또한 Rustoen(1995)은 희망이란 삶의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희망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한 힘과 용기가 있는 반면, 절망이 강한 사람은 수동성을 가지고 체념하기 쉽다고 하였다(김혜숙·민순, 2009).

이와 같이 희망은 목표달성을 위해 긍정적 기대와 동기적 에너지를 제공하며 내적 컨트롤을 통해 의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혜영, 2013). 특히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로 혼란스러운 시기의 희망은 발달과업을 돕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자아탄력성은 현실과 변화를 수용하고 위험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Block(1982)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이지민, 2012).

또한 Kolhne(1996)는 자아탄력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이며, 스스로 상황을 잘 개척할 수 있다고 낙관주의,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마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정은영,

2013).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윤여주, 2011), 특히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학업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래관계 등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속의 청소년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다.

네 번째는 낙관성(optimism)으로 Seligman(1998)은 낙관성이 보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낙관성은 긍정적인 사건을 개인적, 영구적, 확대적 원인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은 외부적, 일시적, 특수적 상황 요인에 기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고, 비관성은 긍정적인 사건을 외부적, 일시적, 특수한 상황 요인으로 해석하며 부정적인 사건은 개인적, 영구적 그리고 확대적 원인에 기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낙관성을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성의 기질이라고 보며 부정적인 것들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미래에 빈번하게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소개한다(김강훈 외, 2012).

Schier(1992)는 이러한 낙관성을 상황 특징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성격적 기질처럼 유전적 영향을 받긴 하지만, 다양한 생활경험이나 학습된 훈련 등을 통해 바뀔 수 있으며, 개인의 사고나 판단, 행동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하양명, 2010). 따라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기의 경험은 낙관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부모와 학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측정 가능하며, 이를 통한 유지와 향상,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고 있는 청소년기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강화

1. 긍정적 강화의 개념 및 유형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란 어떤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의 빈도 또는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적 강화자극으로는 음식물, 컴퓨터 게임, 칭찬, 미소 등이 있다(이성진, 2001). 한편 Miltenberger(2005)는 특정한 행동의 발생에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는(미래에 다시 그 행동을 하기가 쉽다) 것을 강화라고 정의하였다.

긍정적 강화의 예로는 중간고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자녀에게 부모는 칭찬과 선물 등의 긍정적 강화자극을 주었다. 자녀는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경우 부모의 긍정적 강화자극이 자녀의 행동을 강화시켜 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강화에 의해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이 생겨나고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행해지는 보상 등의 강화는 무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영, 2005).

Keller(1968)는 강화의 종류를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로 구분하였으며 강화에 투입되는 매체에 따라 일차적 강화와 이차적 강화로 나누었다. 일차적인 매체는 개체의 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음식물, 선물 등 주로 물질적인 매체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차적 강화는 칭찬, 격려, 승인, 무시, 헐박 등 정신적인 면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Patterson과 Gullion(1963)은 강화매체를 사회적 강화와 비사회적 강화로 나누었다. 사회적 강화란 주로 정신적인 면을 강화하는 칭찬, 격려, 관심, 표현 등에 의해 일어나며, 비사회적 강화는 물질적인 매체인 음식물, 장난감, 선물 등에 의해 강화된다고 하였다(박미영, 2005).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형태의 하나인 신체적 접촉은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닿음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안아주기· 토닥여주기· 포옹· 악수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접촉은 그

것이 상대에게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접촉과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접촉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강화의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은 애정이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채선희, 1987).

부모·자녀 간의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한 Ackerman(1990)은 자녀에게 신체적 접촉은 안전 보장의 의미이며 정상적으로 발육하라는 신호라고 하였다. 특히 유아기에 많이 안아줄수록 보다 기민하고 인지력도 잘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동물은 접촉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반응을 보이고, 서로 접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작용이 없었다면 생명체의 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경옥, 1999)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긍정적 강화란 유기체의 어떤 행동에 대해 만족스럽고 즐거운 자극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지속시키도록 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다(홍순옥, 1992).

또한 긍정적 강화는 강화자극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강화의 자극은 막연한 추측이나 일반론에 의해 강화자극이 선택되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강화의 자극은 강화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따라 강화자극을 주고자 할 때는 별도의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또 바람직한 행동에만 직접 주어져야 하며, 일관성 있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강화자극은 증가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효과적이며 자극의 양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홍순옥, 1992).

이와 같은 강화의 원리는 문제 행동의 수정이나 목표행동의 달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강화는 실생활이나 학교 장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화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일에 대해 관심있게 질문할 때 긍정적 강화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황매향, 1999).

특히 칭찬과 격려와 같은 사회적 강화는 행동을 현저하게 개선시키며,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김인순, 1999)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국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가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관리, 인적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듯 주로 경영학에서 연구되어 온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조직행동에 대한 접근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위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Avey(2007)은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다양한 성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탈행동 및 조직냉소주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동섭과 최용득(2010)은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통신업 등에 속한 국내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심리자본과 지각된 성과 간의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경재와 정범구(2008)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혁신성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적자본과 혁신행동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역시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중(2007)은 긍정심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고 학업적 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 김동현(2006)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높은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교우관계와 학습동기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련한 연구로 희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나혜진, 2009, 홍지수, 2010)들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행복감이 높았다(구재

선,2005)는 연구결과들은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학업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들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복원력 등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학습이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은 이론적으로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간주되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심리학의 하위 네 가지 개념인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그리고 낙관성의 개별적인 효과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김주엽, 김명수, 2011), 이는 하위요인들의 개별적인 효과성보다 긍정심리자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성이 더 크다는 Luthans(2002)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연(2014)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장벽은 부적상관결과를 보였고,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결과를 보였다. 이는 윤하늬(201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장벽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진로포부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미래에 이루길 희망하는 목표나 성취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인격형성, 진로탐색 등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이 시기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과 유지 및 향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간발달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개념화한 학자인 Bronfenbrenner(1979/1995)는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관계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가정은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요인이라고 하였다(하양명, 2010).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Kazdin(2008)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과 연결 짓는다면 그게 바로 긍정적인 강화이며,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Goleman(2008)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 강화를 하는 것은 자녀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하양명, 2010).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의 효과성을 최초로 연구한 Hurlock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칭찬, 질책, 무관심, 통제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5일간 수학 공부를 시키면서 긍정적 강화인 보상과 부정적 강화인 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날은 모든 집단의 성적이 향상되었으나, 둘째 날부터는 칭찬 집단만의 성적이 향상되고 질책집단의 성적은 점차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집단의 성적은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김인순, 1999). 이는 부정적인 강화보다 긍정적인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성이 지속적이며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다른 연구로 최정숙(2001)은 언어적 자극, 미소, 경청, 주목, 관심과 같은 사회적 강화를 사용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협동적 행동을 증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학급 내에서 소란스럽고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적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연구 등은 사회적 강화가 행동 수정 연구나 실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미소, 주목, 경청, 칭찬, 관심 등의 대표적인 사회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강, 유지하도록 하는 훌륭한 강화인자라고 하였다.

한편, 칭찬과 인정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otagn(1981)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어서 긍정적 접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계속되는 인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채선희, 1987).

또 다른 연구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등을 두드려 주는 것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신체의 접촉을 통한 강화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통한 강화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다.(홍지연, 2013).

이 외에 긍정적 강화에 관한 연구로 Parke(1997)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이 물리적 접촉의 양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관계나 애정 또는 관심이 자녀의 사회화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윤정숙(2004)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강화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민감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이 얼굴 표정을 변별하는 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가 영향을 미치며, 부모에게 긍정적 강화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표정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며(오성심, 이종승, 1982), 학교 적응 수준을 증가시키고(차유림, 2001), 긍정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Goleman, 1999)는 결과 역시 긍정적 강화의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긍정적 강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부모의 강화를 물질적 강화와 사회적 강화로 나눈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신체적 접촉인 스킨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를 물질적 강화, 신체적 강화, 사회적 강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강화의 경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인식되는 칭찬과 공감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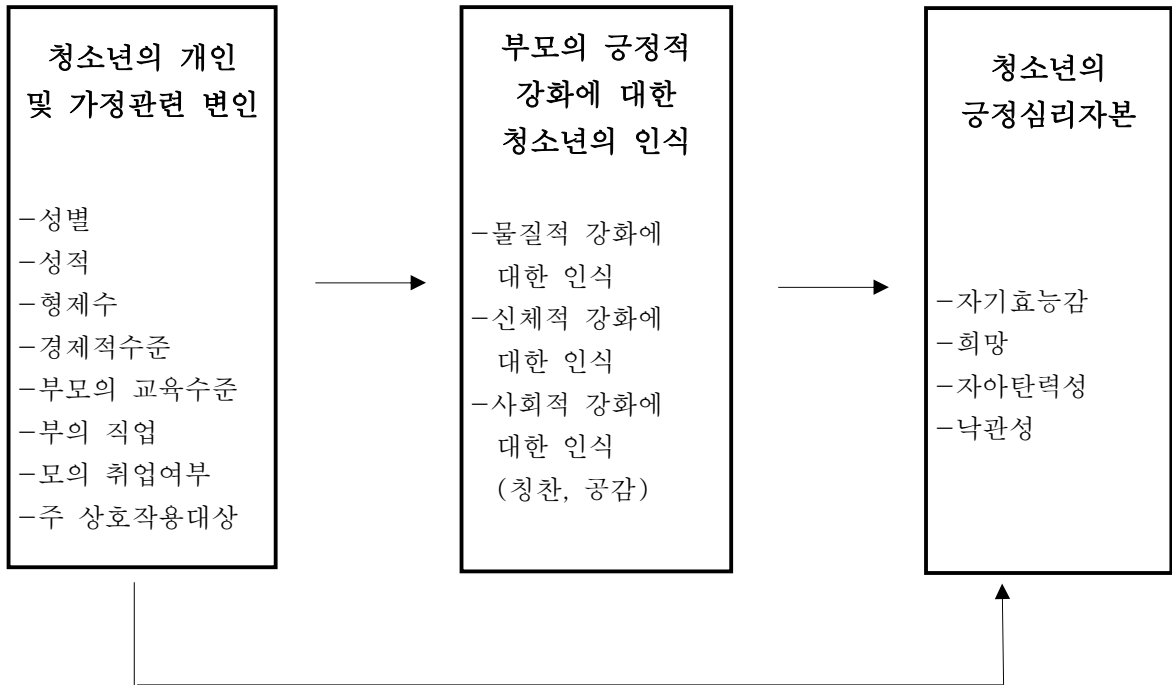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긍정심리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기초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제2절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연구자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긍정적 강화 11문항, 긍정심리자본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종속변인

(1) 긍정심리자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Luthans(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 PCQ)를 정은영(2013)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24문항을 본 연구자가 22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별로 자기효능감 .807, 희망 .818, 자아탄력성 .799, 낙관성 .629로 나타났으며, 전체 긍정심리자본은 .906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2) 개인 및 가정관련 변인

개인 및 가정관련 변인에는 성별, 성적, 형제수,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 중 주 상호작용대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성적은 상·중·하위권으로 구분하였으며, 형제수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1명·2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 중 주 상호작용대상의 경우 평소 부모 중 본인과 더 많이 상호작용한다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분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중·하위층으로 구분하였다.

(3)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Lee, Park과 Im(2004)이 제작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 척도(Child's Perceive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 CPPRS)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11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칭찬(4문항), 공감(5문항)으로 나뉘었으며, 요인적재량값은 모두

0.80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5)* -희망(6)* -자아탄력성(5)* -낙관성(6)*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정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 위기, 실패 등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능력 난관, 좌절에도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신념
독립변수 <u>개인 관련 특성</u> 성별 성적 <u>가정 관련 특성</u> 형제수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부 직업 모 취업여부 경제적 수준 주 상호작용 <u>긍정적 강화 관련 변인</u>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1)*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1)* 사회적 강화에 대한 인식* -칭찬에 대한 인식(4) -공감에 대한 인식(5)	1=남, 2=여 1=상, 2=중, 3=하 1=1명, 2=2명 이상 1=고졸이하, 2=대졸이상 1=고졸이하, 2=대졸이상 1=무직, 단순노동직, 기능직, 농·어업, 2=판매 직, 서비스직, 사무직, 3=관리직, 전문직, 기 타 1=취업, 2=비취업 1=상, 2=중, 3=하 1=아버지, 2=어머니 음식, 선물 등 물질적인 매체로 행동을 강화 시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신체적 표현(안아주기, 토닥이기 등)을 인식 하는 정도 칭찬을 통해 행동과 정신적인 면을 강화시키 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공감을 통해 행동과 정신적인 면을 강화시키 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안의 숫자는 문항수임

* 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

<표 2> 척도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Cronbach'a
긍정적 강화	물질적 강화*	1	-
	신체적 강화*	1	-
	사회적 강화-칭찬	4	.887
	-공감	5	.884
	전체	11	.908
긍정 심리자본	자기효능감	5	.807
	희망	6	.818
	자아탄력성	5	.799
	낙관성	6	.629
	전체	22	.906

* 는 한 문항으로 Cronbach'a 값을 측정할 수 없음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시 소재의 구제주권 2곳, 신제주권 1곳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2·3학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0일~3월 17일까지 4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4월 1일~4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제주시내 중학교 3군데의 2·3학년 48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부실응답 등 적절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42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의 경향, 긍정심리자본의 경향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으로 검증했으며, Cronbach'a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거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긍정심리자본에 차이를 가져오는 독립변수는 t-test, 일월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VIF(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각 독립변수들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부모의 사회적 강화에 대한 유형

사회적 강화 유형		평균	표준편차
칭찬	내가 좋은(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칭찬해 주는 말을 하시는 편이다.	3.91	.93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의미로 칭찬해주는 말을 하시는 편이다.	3.55	1.04
	평소 나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3.48	.97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응원의 말을 해주시는 편이다.	3.79	.99
요인적재량 값		.835	
고유치		2.996	
분산값(%)		74.898	
공감	나의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주시는 편이다.	3.44	1.00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일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시는 편이다.	3.39	1.06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것을 아시면 관심을 갖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편이다.	3.46	1.01
	내 기분에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편이다.	3.47	.99
	내가 가진 의견에 주로 동의해주시는 편이다.	3.56	.97
요인적재량 값		.842	
고유치		3.425	
분산값(%)		68.492	
누적분산값(%)		71.630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관련 특성과 가정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6.5%, 여학생이 53.5%로 여학생이 약간 많았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 36.4%, 중위권 29.4%, 하위권 34.1%로 상위권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형제 수(본인을 포함한)는 1명(독자) 12.9%, 2명 이상 87.1%로 나타났다.

2) 가정관련 특성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33.6%, 대졸 이상이 66.4%로 대졸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0.9%, 대졸 이상이 59.1%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같이 대졸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직·서비스직·사무직이 39.7%로 가장 많았고 무직·단순노동직·기능직·농·어업이 37.1%, 관리직·전문직·기타가 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취업 79.2%, 비취업 20.8%로 취업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 19.6%, 중위층 68.0%, 하위층 12.4%로 중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더 많은 분은 아버지가 17.3%, 어머니가 82.7%로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u>개인관련 변수</u>			
성별	남	199	46.5
	여	229	53.5
성적	상	156	36.4
	중	126	29.4
	하	146	34.1
<u>가정관련 변수</u>			
형제수 (본인포함)	1명	55	12.9
	2명이상	373	87.1
부 교육수준	고졸이하	144	33.6
	대졸이상	284	66.4
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175	40.9
	대졸이상	253	59.1
부 직업	기능직 및 기타	159	37.1
	사무직 및 기타	170	39.7
	관리직 및 기타	99	23.1
모 취업여부	유	339	79.2
	무	89	20.8
경제적 수준	상	84	19.6
	중	291	68.0
	하	53	12.4
주 상호작용	아버지	74	17.3
	어머니	354	82.7

* 기능직 및 기타(무직·단순노동직·기능직·농업·어업), 사무직 및 기타(판매직·서비스직·사무직), 관리직 및 기타(관리직·전문직·기타)

3)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긍정심리자본 실태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관련 특성을 물질적 강화, 신체적 강화, 사회적 강화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강화는 칭찬,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심리자본관련 특성은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긍정적 강화 관련 특성은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 3.61점,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3.26점,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이 3.40점, 공감에 대한 인식이 3.15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칭찬에 대한 인식,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관련 특성은 하위요인별로 자기효능감 3.47점, 희망 3.46점, 자아탄력성 3.31점, 낙관성이 3.41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긍정심리자본이 3.38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희망, 낙관성, 긍정심리자본,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긍정심리자본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u>긍정적 강화 관련 변수</u>		
물질적 강화	3.61	1.02
신체적 강화	3.26	1.25
사회적 강화 - 칭찬	3.40	0.92
- 공감	3.15	0.91
<u>긍정심리자본 관련 변수</u>		
자기효능감	3.47	0.63
희망	3.46	0.64
자아탄력성	3.31	0.72
낙관성	3.41	0.61
긍정심리자본	3.38	0.54

제2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형제수(본인을 포함한)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형제수가 1명일 때 즉, 독자의 경우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중위층이 하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상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상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칭찬에 대한 인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강화 중 공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별,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고 성적이 상위권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고 주 상호작용이 어머니인 경우 공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적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 강화를 많이 한다는 하양명(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에서 성적, 경제적 수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층 집단이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의 경우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하위영역에서 성적이 상위권일 경우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차이

변수	집단	빈도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평균	S	평균	S	칭찬		공감	
							평균	S	평균	S
성별	남	199	3.56		3.16		3.42		3.26	
	여	229	3.66		3.35		3.39		3.05	
T값			-1.031		-1.562		.317		2.330*	
성적	상	156	3.71		3.54	a	3.66	a	3.39	a
	중	126	3.62		3.16	b	3.36	b	3.12	b
	하	146	3.50		3.05	b	3.16	b	2.91	b
F값			1.641		6.434**		11.609***		11.141***	
형제수	1명	55	4.00		3.44		3.58		3.29	
	2명이상	373	3.55		3.24		3.38		3.13	
T값			3.059**		1.113		1.549		1.259	
부교육 수준	고졸이하	144	3.51		3.08		3.28		3.14	
	대졸이상	284	3.66		3.35		3.46		3.15	
T값			-1.425		-2.114*		-1.984*		-.135	
모교육 수준	고졸이하	175	3.51		3.05		3.27		3.09	
	대졸이상	253	3.68		3.41		3.49		3.19	
T값			-1.757		-2.925**		-2.388*		-1.057	
부직업	기능직 및 기타	159	3.48		3.21		3.36		3.07	
	사무직 및 기타	170	3.71		3.28		3.38		3.20	
	관리직 및 기타	99	3.66		3.31		3.51		3.18	
F값			2.084		.256		.808		.947	
모취업 여부	유	339	3.60		3.28		3.41		3.17	
	무	89	3.64		3.18		3.37		3.06	
T값			-.295		.695		.356		1.063	
경제적 수준	상	84	3.86	a	3.48	a	3.61	a	3.35	a
	중	291	3.62	a	3.26	ab	3.40	ab	3.12	ab
	하	53	3.21	b	2.92	b	3.09	b	2.96	b
F값			6.814***		3.210*		5.102**		3.231*	
주 상호 작용	부	74	3.57		3.18		3.24		2.91	
	모	354	3.62		3.28		3.44		3.20	
T값			-.414		-.652		-1.626		-2.536**	

1) *p<.05, **p<.01,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이며, 다른 문자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제3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4개 하위영역 및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적이 상·중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경제적 수준이 상·중위권, 주 상호작용의 대상이 어머니일 때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계순(2015)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상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경제적 수준이 상위층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한혜영(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상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며 주 상호작용 대상이 어머니일 때 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의 경우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유형,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성적이 상·중위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며,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및 기타(판매직·서비스직·사무직)이고 경제적 수준이 상·중위층일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한혜영(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의 경우 성적, 주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적이 상·중위권이고 주 상호작용의 대상이 어머니일 때 낙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하양명(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낙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희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다희(20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에서 성적,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 상호작용의 대상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성적이 경우 상위권일 때 긍정심리자본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 상호작용의 대상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희망, 낙관성, 긍정심리자본에서 모두 그 대상이 어머니일 경우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그 하위영역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변수	집단	빈도	자기 효능감		희망		자아 탄력성		낙관성		긍정 심리자본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성별	남	199	3.49		3.49		3.37		3.36
	여	229	3.45		3.43		3.26		3.45		3.37	
T값			.672		.890		1.567		-1.632		.555	
성적	상	156	3.71	a	3.72	a	3.52	a	3.50	a	3.58	a
	중	126	3.52	b	3.52	b	3.37	a	3.46	a	3.43	a
	하	146	3.18	c	3.12	c	3.04	b	3.27	b	3.12	b
F값			30.650***		40.472***		18.413***		6.214***		31.793***	
형제수	1명	55	3.56		3.57		3.41		3.45		3.48	
	2명이상	373	3.46		3.44		3.30		3.40		3.36	
	T값			1.146		1.416		1.084		.539		1.407
부교육 수준	고졸이하	144	3.35		3.33		3.19		3.41		3.29	
	대졸이상	284	3.53		3.52		3.37		3.41		3.42	
	T값			-2.842**		-3.037**		-2.496**		-.091		-2.389*
모교육 수준	고졸이하	175	3.35		3.34		3.19		3.39		3.29	
	대졸이상	253	3.55		3.54		3.39		3.42		3.44	
	T값			-3.308***		-3.285***		-2.853**		-.623		-3.020**
부 직업	기능직 및 기타	159	3.39		3.36		3.20	b	3.43		3.31	
	사무직 및 기타	170	3.56		3.53		3.41	a	3.40		3.44	
	관리직 및 기타	99	3.45		3.47		3.33	ab	3.40		3.38	
F값			2.902		2.892		3.409*		.118		2.316	
모취업 여부	유	339	3.49		3.47		3.33		3.40		3.38	
	무	89	3.41		3.41		3.25		3.45		3.36	
	T값			1.026		.708		.853		-.651		.439
경제적 수준	상	84	3.73	a	3.65	a	3.53	a	3.43		3.54	a
	중	291	3.46	b	3.45	a	3.31	a	3.43		3.38	a
	하	53	3.13	c	3.21	b	2.97	b	3.25		3.11	b
F값			15.460***		8.371***		10.428***		2.048		10.837***	
주 상호 작용	부	74	3.35		3.27		3.18		3.26		3.23	
	모	354	3.50		3.50		3.34		3.44		3.41	
	T값			-1.815		-2.856**		-1.789		-2.351*		-2.550**

1) *p<.05, **p<.01,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이며, 다른 문자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제4절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청소년의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4개 하위영역 및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그 하위영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긍정심리자본의 영역에서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준다는 김주용·이지연(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에서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에 따른 낙관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의 경우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변수	집단	빈도	자기 효능감		희망		자아 탄력성		낙관성		긍정 심리자본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물질적 강화	상	248	3.59	a	3.56	a	3.38		3.48		3.47	a
	중	123	3.31	b	3.28	b	3.20		3.33		3.25	b
	하	57	3.34	b	3.38	ab	3.27		3.28		3.29	ab
F값			9.872***		8.566***		2.857		4.355**		7.810***	
신체적 강화	상	192	3.59	a	3.61	a	3.50	a	3.54	a	3.52	a
	중	121	3.57	a	3.50	a	3.39	a	3.44	a	3.44	a
	하	115	3.17	b	3.16	b	2.92	b	3.17	b	3.07	b
F값			19.042***		20.132***		26.808***		14.183***		28.877***	
사회적 강화-칭찬	상	198	3.68	a	3.68	a	3.54	a	3.63	a	3.60	a
	중	56	3.05	b	3.00	b	2.91	b	3.02	b	2.97	b
	하	9	3.00	b	2.91	b	2.53	b	2.81	b	2.82	b
F값			28.835***		31.716***		24.955***		29.770***		41.803***	
사회적 강화-공감	상	137	3.77	a	3.77	a	3.61	a	3.71	a	3.68	a
	중	202	3.39	b	3.40	b	3.28	b	3.32	b	3.32	b
	하	89	3.20	c	3.10	c	2.93	c	3.16	b	3.06	c
F값			28.208***		35.723***		27.698***		29.525***		44.632***	

1) *p<.05, **p<.01, ***p<.001

2) S는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이며, 다른 문자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3) 상·중·하 집단은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제5절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관련 변수, 가정관련 변수 및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관련 변수 중 선택된 설명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와 VIF(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부표 1>과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모두 0.6미만이었고, VIF(분산팽창계수)는 모두 5이하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관련 변수 중 성적,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칭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계순(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칭찬활동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유상미(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한편 성별, 형제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주 상호작용,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관련 변수 중 성별, 가정관련 변수에서 주 상호작용의 대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나타났으며, 긍정적 강화관련 변수에서는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희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 상호작용의 경우 대상이 아버지일 때보다 어머니일 때 상대적으로 희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희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김초선(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초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인 Snyder, Wiklund와 Cheavens(1999)의 희망점수가 높은 수

준의 평점과 졸업 가능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희망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칭찬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희망점수를 향상시켰다는 김혜숙, 민순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성별, 형제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물질적·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7.3%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관련 변수 중 성적, 가정관련 변수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관련 변수 중 신체적 강화,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녀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 적응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옥란(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가족지지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유미(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 형제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설명력은 20.7%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관련 특성 중 성별과 성적이고 긍정적 강화 관련 변수 중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낙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중위권일 경우 하위권보다 낙관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성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낙관성이 높게 나타난 안윤미(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지원과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이계순(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낙관성의 수준이 남학생일 경우 높게 나타난다는 이계순(20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적 강화 관련 변수 중 물질적·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은 17.6%이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관련 변수 중 성적, 가정관련 변수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 긍정적 강화 관련 변수 중 물질적 강화를 제외하고 신체적 강화와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칭찬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과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이계순(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 형제 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주 상호작용,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9.8%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심리자본과 그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성적과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강화 관련 변수에서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설명변수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		긍정 심리자본	
	B	β	B	β	B	β	B	β	B	β
<u>개인관련 변수</u>										
성별 (남)	-.014	-.011	-.026	-.021	-.102	-.070	.119	.097*	-.007	-.006
성적 (하)										
상	.342	.260***	.423	.320***	.247	.165**	.134	.105	.291	.258***
중	.260	.187***	.327	.235***	.232	.147**	.134	.100*	.245	.205***
<u>가정관련 변수</u>										
형제수(1명)	-.029	-.015	-.052	-.027	-.039	-.018	-.001	.000	-.042	-.026
부 교육수준(대졸이상)	-.010	-.008	-.026	-.019	-.014	-.009	.057	.044	.014	.013
모 교육수준(대졸이상)	-.035	-.027	-.034	-.027	-.033	-.023	.009	.007	-.027	-.024
부직업(기능직 및 기타)										
사무직 및 기타	.037	.028	.046	.035	.099	.067	-.047	-.038	.041	.037
관리직 및 기타	-.070	-.047	-.011	-.008	.034	.020	-.071	-.049	-.019	-.015
모 취업여부(무)	-.024	-.015	-.048	-.030	-.032	-.018	-.074	-.049	-.055	-.041
주 상호작용(모)	-.067	-.040	-.153	-.090*	-.084	-.044	-.099	-.061	-.097	-.067
경제적수준 (하)										
상	.308	.193	.106	.066	.288	.158*	.030	.020	.174	.127*
중	.159	.118	.042	.031*	.195	.126*	.075	.057	.118	.101
<u>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관련 변수</u>										
물질적 강화	.032	.051	.027	.043	-.028	-.039	.005	.008	.005	.010
신체적 강화	.044	.087	.042	.082	.103	.178***	.020	.040	.050	.114*
사회적 강화										
칭찬	.109	.160**	.120	.174**	.111	.142*	.165	.249***	.127	.217***
공감	.078	.112	.093	.133*	.099	.124*	.112	.166**	.095	.158**
상수	2.310		2.353		2.137		2.295		2.268	
Adjusted R2	.234		.273		.207		.176		.298	
F	9.156***		11.029***		7.970***		6.710***		12.330***	

1) *p<.05, **p<.01, ***p<.001

2) 성별, 성적, 형제수, 부·모 교육수준, 부직업, 모취업여부, 주 상호작용, 경제적 수준은 더미변수이며, ()집단이 0, 기타집단은 1임

제5장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대에 맞는 재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개발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간행동을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과 역량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인 청소년기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며 성장해야 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정, 사회 등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환경의 자극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강화는 자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형성의 중요성과 함께 부모의 긍정적 강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3.61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다.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은 3.26점,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은 3.40점, 공감에 대한 인식은 3.15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의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물질적 강화에 대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칭찬, 신체적 강화, 공감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칭찬과 공감 등의 사회적인 강화와 신체적 접촉보다는 용돈, 선물과 같은 물질적인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은 3.38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희망 3.46점, 낙관성 3.41점, 자아탄력성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평균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긍정적 강화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강화의 경우 형제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이 독자일 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 강화가 선물과 용돈의 형태로 경제적 수준과 관련되었으며, 형제가 많은 경우보다 독자일 경우 물질적인 매체를 통한 보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강화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강화의 경우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긍정적 강화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강화를 살펴보면, 먼저 칭찬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별,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경우 부모의 공감능력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부모의 공감에 대해 욕구가 더 큰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이 어머니일 경우 청소년들의 공감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

이었다.

넷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낙관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외에 희망의 경우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낙관성의 경우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적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적과 긍정심리자본의 밀접한 연관성과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가정환경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에서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의 경우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해 많이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의 긍정적 강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섯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 중 성적은 모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희망의 경우 성별, 성적, 부모 중 주 상호작용의 대상, 사회적 강화 중 공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희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김초선(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yder, Wiklund와 Cheavens(1999)의 희망점수가 높은 수준의 평점과 졸업 가능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 신체적 강화에 대

한 인식, 사회적 강화 중 공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의 경우 성별, 사회적 강화 중 공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 공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적, 가정관련 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강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강화 중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 모두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신체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이었다.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들 중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업이나 직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는 결과들을 뒷받침해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인재양성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의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에서 신체적 강화와 사회적 강화는 긍정심리자본의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 긍정심리자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인이었다. 또 물질적 강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자아탄력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과 가정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은 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강화 중에서는 칭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대한 인식이었다. 특히 성적과 칭찬에 대한 인식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칭찬과 공감의 표현은 자녀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실제 가장 많이 인식되고 있는 물질적 강화보다 자녀의 올바르게 건강한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형성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한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3곳을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장에 따른 시계열적 연구를 한다면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강화뿐만 아니라 부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포함한다면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숙·김은주·김영준(2012). 어머니와 지적장애자녀간의 부적강화의 뒷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 지적장애연구, 14(2), 177-199.
- 권현정(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림(2005). 칭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영(2015).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차이 및 부적응문제.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4). 결손가정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김미진(2004). 교사효능감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1), 37-58.
- 김용석(2012). 행복의 선행요인으로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긍정심리자본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이채식(2013). 청소년의 긍정개발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청소년학 연구, 4(1), 29-56.
- 김은빈·김정섭(2015). 칭찬-격려 선호에 따른 언어적 피드백이 초등학생의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9(2), 285-301.
- 김이경(2009).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이지연(2007).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115-136.
- 김혜숙·민순·박종·김경미·하윤주·김은아·정선주(2009). 칭찬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희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2(2), 61-71.
- 노안영·이미라·정민(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1023-1038.

- 노운영(2015).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광수(2013). 정적강화와 부적강화가 직무수행, 정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채욱(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가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강화체제와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2012). 감정코칭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애(201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긍정적 강화와 의사소통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희(2008). 인성교육 참여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림(201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공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강화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민감성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훈·유경애·김덕순(2008). 부모의 칭찬 화행과 유아의 생활적응. 영유아교육연구, 11, 143-160.
- 안윤미(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낙관성 및 행복감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문식(2013). 긍정심리의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여주(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분노, 분노조절 및 우울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하늬(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

- 심리자본에 매개효과. 숙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순(2015).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1999).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강화와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1999). 사회적 강화가 운동학습 태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희(2015).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2016).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습된 무기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란(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14).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지각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전남련(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현사
- 이지민(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의영(1993).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 문학과지성사
- 장성옥(1996). 돌봄에서의 신체적 접촉의 의미. 간호학탐구, 5(1), 92-123.
- 전향신(2015).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인식 차이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나 · 이창식(2011).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구 동향. 청소년학연구, 18(3), 273-299
- 정옥분(2007). 전 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옥분(2014). 발달심리학. 학지사
- 정은영(2013). 여고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택용(2011). 부모의 권위주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15). 청소년의 긍정정서가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호 · 박균열 · 임준용(2015).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학교 리더십 개선 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1(1), 27-51.
- 최은찬(2013).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희(1988). 신체적 접촉에 의한 교사의 칭찬과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양명(2010). 부모의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윤(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2013). 대학생의 유머감각이 긍정심리자본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승현(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옥(1992). 유아기 교육의 정적강화와 부적강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3(1), 211-227.
- Achor, S.(2010), The Happiness Advantage: The Seven Principles of Positive Psychology That Fuel Success and Performance at Work, Random House.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Freeman.
- Clifton, D. O., Harter, J. K.(2003), "Investing Strengths", In A. K. S. Cameron, B. J. E. Dutton, & C. R. E. Quinn (Ed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111-121),

-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 Fred Luthans(2012). 긍정심리자본(김강훈· 김정기· 박상만 역). 서울; 렉스미디어
- 어
- Keller, F.S.(1968). Learning reinforcement Theory. New York : Random house.
- Losada, M.(2008), Work Teams and the Losada line: New result Positive Psychology News Daily, Dec. 9.
- Luthans, F. (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57-72.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Norman. S. M(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 541-572.
- Miltenberger,R.G.(2005). 행동수정(윤치연 · 이영순 · 이효신 · 천성문 역). 서울;시그마프레스
- Parke,R.D.(1997). 아버지의 어린이 양육. 광덕영 역. 서울; 학문사
- Seligman M. E. P(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Pocket Books.
- Snyder, C. R(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Abstract>

Study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

- Focused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 of parents -

Ji-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Natural Scienc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e-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positive reinforcement of parents as a research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mation and positive reinforcement of adolescent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this.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48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hree junior high schools in Jeju city. A total of 428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T-test, January batch distribu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ercep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 of parents was 3.61, 3.40, 3.40, 3.26, and 3.15, respectively, on the perception of material strengthening, praise on social reinforcement, , Respectively, and all were in the 'normal' level. This means more use of physical media such as pocket

money and gifts rather than social reinforcement and physical contact in the home such as praise and empathy.

The perceptions of material strengthening were found to be higher when the adolescent was a reader, and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physical strengthening,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of parents, The higher. In the case of the recognition of praise during the social strengthening,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praise. In the case of perception of empathy,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the higher the parental interaction was with mother than father.

Secon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was 3.38 points as a whole, 3.47 points of self - efficacy as a sub - factor, 3.46 points of hope, 3.41 points of optimism, and 3.31 points of ego - resilience. This suggests that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is 'normal', and the need for diverse education and support is needed to raise the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case of to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parental educ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higher the level of all sub factors of positive reinforcement, the higher level of self - efficacy, The higher the level of economic and parental educ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all subcategories of positive reinforcement. In the case of hope, the higher the level of all the sub - factors of positive reinforcement,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the main interaction subject is the mother, and the ego - The level of education,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the father 's occupation, the clerical recognition, and the empathy in the social strengthening. In the case of optimism, when the level of economic performance of the grades and the family, the level of parents' education, the

level of all the sub - factors of positive reinforcement were high when the subject of the main interaction was mother, it was high.

Third,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were grades, economic level of family, and awareness of empathy and praise in social reinforcement. Particularly, the perception of grades and complim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all areas. This suggests that the expression of praise and empathy in childrear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raising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the child. It also suggests that social reinforcement has more impact on children than material reinforcement, which is perceived to be the most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home environment and the role of parents, and a parent education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mation in adolescence and the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of positive reinforcement of parent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m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use of parents' positive reinforcement and parental role are necessary.

부 록

<부표 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성별	성적	형제수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취업 여부	상호 작용	경제적 수준	물질	신체	칭찬	공감
성별	1												
성적	.097*	1											
형제수	.020	.039	1										
부학력	.110*	-.220*	-.022	1									
모학력	.063	-.238*	-.064	.495**	1								
부직업	.056	-.125*	-.098*	.238**	.177**	1							
모취업 여부	.074	.165**	-.010	-.025	-.054	-.027	1						
상호작용	.082	-.050	.046	.054	.034	.062	.036	1					
경제적 수준	-.012	.254**	.025	-.233*	-.243*	-.204*	.097*	-.037	1				
물질	.050	-.087	-.147*	.069	.085	.074	.014	.020	-.172**	1			
신체	.075	-.164*	-.054	.102*	.140**	.034	-.034	.032	-.120*	.232**	1		
칭찬	-.015	-.226*	-.075	.096*	.115*	.053	-.017	.079	-.151**	.296**	.483**	1	
공감	-.112*	-.223*	-.061	.007	.051	.053	-.051	.122*	-.121*	.257**	.489**	.547**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부모의 긍정적 강화 및 부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김혜연
연구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이지연

※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O 또는 √ 표시를 하세요.

1. 성별은 어떠합니까?

- ① 남 ② 여

2.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최상위권 ② 상위권 ③ 중위권 ④ 하위권 ⑤ 최하위권

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최상 ② 상 ③ 중 ④ 하 ⑤ 최하

4-5.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부				
모				

6-7. 부모님의 직업은 어떠합니까?

	① 무직 /가정주부	② 단순노동직 (환경미화원, 비숙련공 등)	③ 기능직 (운전기사, 목수 등) 및 농·어업 등	④ 판매직 및 서비스직	⑤ 사무직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	⑥ 관리직 (회사간부, 경영가 등)	⑦ 전문직 (의사, 교수, 연구원, 판사, 변호사 등)	⑧ 기타
부								
모								

8. 형제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 명

9. 평소에 부모님 중 상호작용이 더 많은 분은 누구인가요?

부 ()

모 ()

※ 다음 내용을 읽고, 위에 선택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O나 V표시를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좋은(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게임,tv시청 등)을 하게 하시거나 용돈, 선물을 주시는 편이다.					
2	내가 좋은(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칭찬해 주는 말을 하시는 편이다.					
3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의미로 칭찬해 주는 말을 하시는 편이다.					
4	평소 나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5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응원의 말을 해주시는 편이다.					
6	평소 나에게 신체적 사랑표현(안아주기, 토닥이기 등)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다.					
7	나의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주시는 편이다.					
8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일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시는 편이다.					
9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것을 아시면 관심을 갖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편이다.					
10	내 기분에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편이다.					
11	내가 가진 의견에 주로 동의해주시는 편이다.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경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고 평소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O 또는 √ 표시를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낼 수 있다.					
2	나는 자신 있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나는 자신감이 있다.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5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다.					
6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7	나는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이 있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한다.					
9	현재 나는 내 자신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11	나는 지금 내가 설정한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12	나는 보통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					
13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고 한다.					
14	나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극복한다.					
15	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는 편이다.					
16	나는 처음에 어떤 일을 잘못했더라도 될 때까지 해 본다.					
17	어떤 것이 불확실할 때 나는 대체로 좋은 쪽으로 기대한다.					
18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잘못될 수 있다면 그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19	나는 항상 모든 일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편이다.					
20	나는 언제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편이다.					
21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다.					
22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